

환경과 경제를 위해 원자력을 살려주세요

탈원전 정책 시정 필요성과 탈원전 반대 서명



□ 가동 이력으로 입증된 원전 안전성

- 50여 년간 전세계 원전 600여 기에서 사상사고 '단 한 건'(체르노빌, ~50명)
- 우리나라 원자로형(가압수형) 370여 기에서는 방사선 유출사고 조차도 전무
-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 없었음(설계초과 지진에도 안전했던 사례 다수)
-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이었고 방사선 사망자도 미발생

□ 현재 기술로도 사용후핵연료 처분 가능

- 절대적 발생량이 적어 발전소 부지에 생애 발생량 전량 임시 저장 가능
- 지하 심층처분은 현재 기술로 가능(이미 스웨덴, 핀란드에서 실용화)
- 향후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기술로 처분 가능

□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전도 지속적 이용 추세

- 원전 유지·확대, 신규 도입국(36개국)이 탈원전선언국(5개국)보다 월등히 많음
- 미국, 중국, 일본, 프랑스, 러시아, 영국 등 강대국은 원전 지속적 이용

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대기 환경 악화

- 원전을 LNG로 대체하면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증가 초래
-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차질

□ 전기료 대폭 인상 초래

-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확대는 발전원가의 대폭 상승 초래 (원전의 2~3배)
- 산업용 전기료(OECD 중 14번째로 저렴)인상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유발

□ 미래 안정적 전력 공급 차질 가능성

- 향후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에너지의 전기화율 증가 예상
- 최대 전력수요 과소예측으로 인한 전력 공급위기 초래 가능성 상당

□ 원전산업 생태계의 붕괴 및 수출 경쟁력 약화

- 신한울 3·4호기 등 신규원전 취소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산업 급속한 몰락
- 국내 탈원전과 원전 해외수출은 모순이고 양립 곤란
- 원전수출 가격경쟁력 상실 및 적기, 적가 건설능력 대폭 약화

□ 원자력공학 학문 붕괴와 전공자 감소로 인한 가동원전 안전성 저하 우려

- 미래대비 기술개발 금지로 세계 수준인 원자력기술 학문 및 연구 능력 소멸
-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부족에 따른 가동 중 원전 안전성 저하 우려
- 북한 비핵화 검증과 지원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 능력 상실

□ 국민 대다수는 지속적인 원전 이용을 지지

- 두 번의 원자력 인식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원자력 지속이용의견 7:3으로 우세

□ 탈원전 반대 서명 참여 방법

- 온라인 서명은 카카오톡 메시지창(받을 사람을 자신 혹은 친한 사람으로 선택한 후)이나 인터넷 주소창에 okatom.org (오케이 아톰)를 입력한 후 진행
- 오프라인 서명은 홈페이지 www.okatom.org 에서 자필서명 양식 다운로드

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·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

(전화: 054-704-6006, 팩스: 054-704-5999, 이메일: okatom34@gmail.com)